

도시건축에서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화 방안 - 영국 도시건축위원회(CABE)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영범^{1*}

¹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A study on the role and policy guidelines of public design in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Young Bum Reigh^{1*}

¹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정책수립 및 실현과정에서 필요한 담론과 이슈를 정리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용자참여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건축에서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 공공디자인의 가치,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한 사례로서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인 케이브의 활동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지원과 디자인 리뷰제도를 중심으로 케이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형 공공디자인 모델의 기본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디자인은 가치의 통합, 방식의 통합, 주체의 통합, 이슈의 통합, 장소의 통합 등의 다자간 협력과 소통, 통섭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rganize the issues regarding the necessary components of public design in order to provide an outlook of policy guidelines on urban design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ity and user participation. This paper includes an in-depth analysis of CABE in order to suggest communal notions and the values of public design that would enhance the quality of public design. Thus,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catalyzing public design regulations and policies in the future. It analyzes the design review and supportive tools for good decision-making of suggested in the CABE case in order to provide an integrated model of public design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presented by current approaches of public design. The unity of values, methods, subjects, issues, and places suggested in this paper is the key notion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model of public design through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agents involved in public design process.

Key Words : Publicity, Public design, CABE, Design review, Good design, Integrated design

1. 서론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비단 디자인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연구가 아니라, 디자인을 결정짓는 의사결정체계 내에 개입된 모든 힘 관계에 대한 조명을 포함한다. 도시공간의 공공성은 공간 내에 개입된 의사결정체계의 복합

적인 개입과 상호갈등의 증재와 조정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공간 내 공공공간이 사용자로부터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잘못된 디자인이 어디서 어떻게 초래되는 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조성과 관련된 정책, 계획, 설계영역별 관련제도간의 의사결정체계내의 불일치와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사항을 제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013-D00100) / 이 논문은 동시에 2007년 경기대학교 연구년 지원을 받아 수행됨.

*교신저자 : 이영범 (ybreich@hanmail.net)

접수일 10년 06월 23일

수정일 10년 07월 05일

게재확정일 10년 07월 06일

시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통해 도시에 지어지는 수많은 건조환경물이 어떻게 하면 그 도시에 내재된 생활문화와 도시민의 삶을 담아 낼 수 있을가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런던 도시건축의 핵심인 공공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전문기구인 영국도시건축위원회(CABE: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디자인의 행정거버넌스, 전문가 서비스, 주민참여 등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통합형 공공디자인 모델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초조사로서의 문헌 및 자료조사를 진행하였고 직접조사로 방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케이브의 방문조사는 2008년 2월 당시 케이브의 부위원장이었던 폴 핀치(Paul Pinch)와의 인터뷰와 2008년 5월 홍보담당자인 케스(Kath)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범위는 공공디자인의 쟁점,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가치, 사례분석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통합형모델의 기본방향 설정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도시건축에서 공공디자인의 쟁점분석

2.1 공공디자인 정책의 쟁점분석

공존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을 정책이나 제도로 틀을 만들 경우 흔히 표 1에서 정리된 고려사항을 명확하게 설계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기존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의 성격은 표 1에서 정리한 것처럼 대상과 주체, 역할과 가치 등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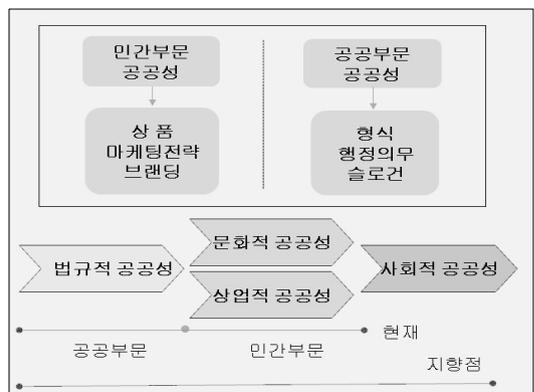
[표 1] 기존 공공디자인 정책의 성격분석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을 향유하는 주체 ·공공성이 지향하는 가치 ·공공성이 다루는 영역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과 방법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 ·공공성을 실현하는 예산과 일정 ·공공성실현과정의 지원체계
기존 공공 디자인 정책과 사업의	디자인대상	·물리적 공간(장소)에 집중
	디자인주체	·전문가직업체계에 의해 운영
	디자인역할	·목적을 얻기 위한 도구적 언어로서의 역할

성격	디자인성격	·디자인 전문성의 자기표현적 이데올로기
	디자인사용자역할	·결과물의 구성원으로서의 관객 역할
	디자인 소통방법	·전문가 의도의 일방향적 전달
	공공성의 성격	·개념적/보편적/과시적 공공성을 중시
	중시가치	·디자인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추구 ·결과물의 시각적 상징성과 과시성 중시
	도시환경에 대한 태도	·개별적인 가치를 중요시해 주변 도시환경에 독립적인 태도를 취함

도시 공공성은 공공성의 대상, 목적, 절차, 내용, 결과, 그리고 주체가 갖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지녀야만 한다고 이야기한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절차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 및 도시관련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공공성의 문제는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에서마저도 절차가 공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포장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만족시키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크다. 형식을 통한 수사적 기교가 내용이 불합리하게 왜곡되어도 전체사업이 갖는 정당성의 일정한 지분을 확보한다고 믿는 자신만의 합리성에 너무 치우쳐 생기는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만 하면 도시공간에서의 공공성이 제대로 기능하느냐의 여부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해 공공디자인이 사용자 레벨에서 면밀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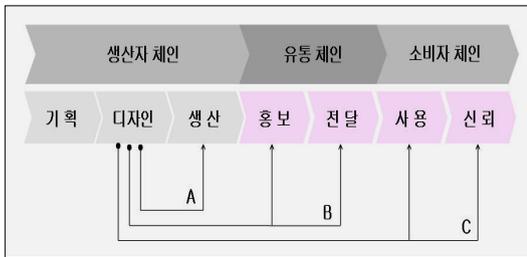
공공디자인이 절차의 정당성과 더불어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법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공공성과 사회적 공공성으로 가치가 확장될 때 공공디자인이 도시민의 일상생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 공공디자인의 지향점 설정

2.2 도시건축에서 공공디자인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문제점 분석

공간이나 장소를 다루는 대규모 도시공공개발사업의 경우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체는 이를 제공하는 생산자이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제공된 시설을 사용하는 주체인 일반시민들은 디자인이 결정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된 시설물이 시민들의 생활과 만나기 시작하는 곳은 조성된 시설물이 완공되어 소비자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체와 디자인을 소비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생기는 모순, 그리고 디자인을 결정하지 않은 소비자가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떠 맡게 되는 불합리가 디자인의 공급과 유통, 소비과정에 존재한다. 생산자는 대체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디자인을 결정할 뿐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가능하도록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생산자 위주의 공급논리에 의해 결정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디자인의 수명은 오래 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불만족스럽게 디자인된 공공시설물을 사용한 소비자의 이용 만족도 역시 매우 낮게 된다.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사회는 불합리한 자원배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하고 좋은 디자인이 비용을 줄인다는 지혜에 도달하게 되었다[5].



[그림 2] 공공디자인 가치의 의사결정단계

그림 2의 공공디자인 가치의 의사결정단계를 보면 디자인의 가치를 생산(A 단계)을 넘어 홍보하고 전달하는 유통과정(B 단계)까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계(C 단계)까지 고민해야만 공공디자인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에서 소비자의 사용까지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좋은 디자인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 도시 공공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영국 도시건축위원회(CABE: 이하 케이브)가 디자인을 통해 도시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이다.

3. 공공디자인 관리체계로서의 영국 도시건축위원회(CABE) 사례분석

3.1 케이브의 개요

3.1.1 케이브의 탄생배경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인 케이브를 중심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논의는 공공디자인의 질이 예산의 문제(capital cost)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비 가치의 문제(Value for Money)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는 데 차별성이 존재한다.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데 10%의 예산을 증가한다고 반드시 공원의 질과 사용자의 만족도가 10%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공원의 사용자 만족도가 더 저하되는 경우도 많다. 제공된 공공디자인이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말 여기에 필요한 공공의 공간환경이 잘 디자인되어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은 공공공간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을 드러낸다[11,12].

그렇다면 공공디자인의 발주자와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케이브는 그 간극을 메우는 시작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물론 예산과 일정, 절차의 합리성 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늘 돈을 낭비하는 저가치의 공간으로 치부되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잘못된 디자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디자인이 중요한가?, 디자인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도시환경과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케이브가 탄생하였다[9].

3.1.2 케이브의 구성과 운영

런던의 공공디자인을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런던시라면 영국 전반에 걸친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케이브이다. 1999년 공공디자인의 제도화된 기관으로 설립되어 공공디자인분야의 전문적인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케이브는 영국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케이브는 초기에는 12명의 커미셔너와 38명의 스템으로 시작하였다[8]. 2009년 현재 4명이 늘어나 16명의 커미셔너와 5개 조직 100여명의 스템이 함께 일

하는 케이브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좋은 디자인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간 1200만 파운드(한화 2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표2 참조), 이 예산은 문화체육부에 의해 주로 지원되며 추가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해 보조 지원된다[7,8].

[표 2] 케이브 연간 재정지원 주체 및 지출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2003/04	2004/05	2005/06	Total
DCMS**	3.53	4.00	4.50	12.03
ODPM***				
Core Activity	2.70	2.75	3.15	8.60
Space	3.05	3.25	2.85	9.15
Skills	1.60	not known	not known	1.60
Sub-total	7.35	6.00	6.00	19.35
Other	0.62	0.50	0.50	1.62
Total	11.50	10.50	11.0	33.0

* 출처는 2006년 케이브에서 발간한 Corporate Strategy 2003/04-2005/06와 케이브 웹사이트 (www.cabe.org.uk)

** 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ODPM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3.2 케이브의 주요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과 관련된 현황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건물과 외부공간 디자인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케이브이다. 공공도서관, 학교, 병원, 공원, 놀이터, 무장애공간, 문화시설, 주거단지, 지역공동체 시설과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대다수의 시민이고 그 시설의 이용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케이브는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공공성이 높은 건물들과 장소가 잘못 디자인될 경우 시민들이 이런 시설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영향은 무척 크며 동시에 이로 인해 사회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디자인이 공공성을 좌우하는 첫 단추라는데 인식을 모으고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이 도시민의 삶을 질을 한 단계 올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디자인 심의, 디자인과정에서의 주민참여방식 자문, 전문가 서비스 지원, 디자인 리뷰 매뉴얼 제공, 사례 조사를 통한 방향제시, 지역간 디자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3년 5월 케이브는 케이브 스페이스(CABE Space)란 독립된 유니트를 설치하고 도시의 공공공간이나 공원, 녹

지공간의 디자인과 유지관리가 뛰어난 사례를 디자인 챔피언으로 지정하고 있다[13].

3.3 케이브의 공공디자인 개선정책

3.3.1 좋은 디자인을 통한 공공디자인 개선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한 비용(the cost of bad design)을 줄이자’, 이것이 케이브가 활동하는 목표이다. 영국에서의 공공디자인은 가급적 많은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예산을 쪼개어 쓰는 소위 소액다건지원이라는 정책 기조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문화가 2000년대 초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2005년 영국 중앙정부는 공공디자인프로젝트에서 좋은 디자인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생애주기의 비용과 가치’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 비용대비 가치에 대한 정책전환은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 2005년 발행한 「보다 나은 건설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improving public services through better construction)」이란 정책보고서에 근거한다. 이 보고서는 공공예산이 사용될 때 좋은 디자인의 가치와 아울러 공공디자인의 생애주기 동안의 비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계기로 비용대비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회계감사의 기준에 포함되었다[12].

케이브는 공공디자인의 현실화과정에서 예산의 절약이 결코 경제적이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예산절약으로 인해 디자인의 질이 떨어질 경우 이는 결코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쁜 디자인은 결국 다시 그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여 비용과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배분이 공공디자인의 영역에서 되풀이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사례를 들면 1975년 완공된 런던 동부의 달스톤(Dalston)지역의 주택단지는 19층의 고층아파트 4개동과 5층 아파트 19개동으로 구성된 고밀도 단지인데, 주변의 도시적 상황과 지역사회의 공용공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해 결국 60년이란 건물의 경제적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20년 만에 철거되어 결국 9200만 파운드(한화 18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재건축되었다. 버밍햄의 조지스 공원의 경우도 1970년대에 조성되었으나 잘못된 디자인으로 결국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의 온상이 되어 지역주민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위험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이 공원을 재개발하는데 다시 120만 파운드(한화 24억원)가 소요되었다. 잘못된 디자인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자, 디자이너, 지역사회, 사용자들이 의사결정단계에서

잘못된 디자인의 대가에 대한 이해와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케이크가 좋은 디자인을 통해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12].

나쁜 디자인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지만 좋은 디자인은 다음 세대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결국 좋은 디자인이나 나쁜 디자인이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의 역량이나 개인적 기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정과 함의로 결정되기에, 좋은 디자인은 결과적으로 무한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나쁜 디자인은 디자이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생긴다. 좋은 디자인을 이끌어내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론은 좋은 정보이다. 좋은 정보는 기존 사례의 교훈과 해당 사업에 내포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면밀한 분석에서 나온다.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내부 정보와 남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외부정보가 모두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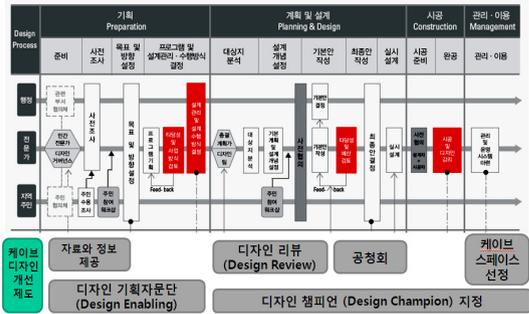
따라서 케이크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들이 무엇이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좋은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제공한다. 좋은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공간환경의 원리로 ‘공간특성(character)’, ‘공간의 연속성과 위요감(continuity and enclosure)’, ‘공공영역의 질(quality of the public realm)’, ‘이동의 용이함(ease of movement)’, ‘합법성(legibility)’, ‘적응성과 다양성(adaptability and diversity)’,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그리고 ‘무장애성(Inclusiveness)’을 들고 있다[9,12].

3.3.2 케이크의 공공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케이크의 공공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과 보상 및 격려로 구분된다.

[표 3] 케이크의 디자인 개선방식

개선방식	참여단계 및 지원방식	내용
지원	간접 지원 의사결정단계 : 정보 및 자료지원	사례분석 보고서 제공 분야별 전문보고서제공
	직접 지원 기획단계 : 디자인 자문 설계단계 : 디자인 심의	기획자문단 서비스 제공 디자인 리뷰 패널 제공
보상 및 격려	사용단계 : 디자인 상 수상	케이크 스페이스 선정 디자인 챔피언 선정



[그림 3] 설계단계에 따른 케이크의 디자인 개선제도

지원방식은 의사결정단계, 기획단계, 설계단계에 따라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의 형태로 구분된다. 간접지원은 기획 이전에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례들의 분석보고서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출판물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직접지원은 기획자문단(Enablers)을 통한 디자인 자문과 디자인 리뷰 패널(Design Review Panel)을 통한 디자인 심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시건축의 건조환경이 시공되어 사용될 때 우수한 건축물은 케이크 스페이스로 선정되고 동시에 이를 설계한 건축가는 디자인 챔피언에 선정된다[14].

1) 기획 자문제(Enabling)

케이크는 공공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 수행조직과 프로세스, 전문지식과 정보제공 등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케이크 내에 200여명의 분야별 기획 자문단(Enablers)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기획자문단은 건축가, 도시계획가, 조정설계가, 프로젝트 관리자, 부동산 개발업자, 행정 전문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적 작업방식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기획초기단계에 참여하여 좋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공공프로젝트의 디자인 팀이나 개발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처의 기획단계에 참여하여 발주처의 요구와 프로젝트의 목적에 합당한 개념, 가치, 과정, 방법론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무료로 컨설팅해 준다. 아울러 특정 프로젝트의 기획자문단에 선정된 전문가 팀은 적절한 발주 방식, 예산의 적정성, 디자인팀 선정기준, 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는 디자인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한다[15].

2) 디자인 리뷰 패널

케이크의 디자인 리뷰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주요 도시건축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개발자가 케이브의 디자인 리뷰를 받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나 도시의 공공성에 직결되는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도시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디자인 리뷰를 의무적으로 받아 오도록 요청한다. 사업개발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케이브의 디자인 리뷰를 통과하여 인증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디자인 리뷰 패널은 전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디자인 리뷰 패널과 지역단위의 디자인 리뷰 패널을 구성한다. 케이브는 매달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대상으로 80여개의 계획안에 대해 프리젠테이션과 패널 미팅을 통해 자문하여 연간 400여개의 계획안에 대해 디자인 리뷰를 수행할 실적을 갖는다.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용도상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이트의 위치가 갖는 장소적 중요성, 그리고 규모, 용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디자인 제안의 구체적 내용을 케이브와 상의하여야 한다[16].

디자인 리뷰에서는 디자이너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계획의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이나 목적, 그리고 결점 등을 제공한다. 잘된 디자인과 잘못된 디자인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제공하며, 잘못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결점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잘된 디자인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디자이너를 지원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팀에서 갖지 못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성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디자인 리뷰 패널은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고민과 이해를 벗어나 좀 더 큰 틀에서의 논의와 토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에서 인허가를 위해 접수된 프로젝트를 케이브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케이브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디자인 리뷰 패널을 구성한다. 디자인 리뷰패널에는 프로젝트의 개발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여기서의 자문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문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의 디자인 리뷰 패널은 건축주나 계획팀을 위해 자문되지만 계획안의 최종단계에서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정부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디자인 패널은 통상 10~2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풀을 통해 각 프로젝트마다 대략 4~6명 정도가 참여한다. 그리고 패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당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15,16].

3.4 케이브 사례를 통한 공공디자인 통합형 모델의 기본방향 설정

공공디자인은 공공성을 통해 도시공간의 질과 도시민의 일상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치로 한다. 그래서 공유와 공존의 가치를 가져야만 하는 공공디자인이 노출한 문제점은 가치설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실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이 개별적 가치의 추구, 중복과 과다경쟁의 노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조정과 타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부재, 삶(프로그램)과 장소(물리적 시설)의 이분법적 분리 등의 현상이다. 그래서 대안적 접근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인본디자인, 통합디자인, 그리고 협력디자인이다.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별적 성과주의와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통합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래서 향후 공공디자인의 제도개선은 인본디자인의 가치를 기본으로 협력적 방식에 근거한 통합디자인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디자인 모델은 가치의 통합, 방식의 통합, 주체의 통합, 이슈의 통합, 장소의 통합 등의 다자간 협력과 소통, 통섭을 강조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4,5].

본 논문에서 분석한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인 케이브의 공공디자인 질적 개선제도는 향후 지자체 단위의 도시디자인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데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공공디자인의 제도개선은 가치의 측면에서 인본적 디자인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둘째, 공공디자인의 제도개선은 다루는 영역과 방법의 측면에서 통합적 디자인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공공디자인의 제도개선은 관리 및 행정지원의 측면에서 협력적 디자인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4. 결론

케이브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제도와 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공공디자인의 주체와 역할, 그리고 가치설정이다. 공공성의 주체로서의 공공의 의미가 공공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시에 공공디자인이 공공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생기는 의문중의 하나가 ‘공공디자인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공공디자인을 아무리 떠들어도 관이 주체가 되어 공공디자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할 경우 공공디자인에서의 공공성은 디자인에 의해 조작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이 주체와 역할 설정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관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공디자인에서 관의 역할은 공공디자인의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자와 협력자의 역할이어야 한다. 즉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생활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디자인이 기존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행정상의 난제를 풀어주고 공공디자인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제도와 사업이 보여준 한계와 문제점을 또 다른 제도화를 통해 완벽하게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이 내포하는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공공’을 실현하는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통합디자인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디자인 정책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드러낸 문제점을 ‘통합’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통합의 개념을 소통, 협력, 통합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통합디자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1] 커뮤니티디자인센터,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나무도시, 2009.
- [2] 도시재생네트워크,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픽셀하우스, 2009.
- [3] 이영범,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미메시스, 2009.
- [4] 이영범, “통합디자인의 가치와 가치창출형 통합디자인 정책의 방향”, 건축, 제54권 제5호, pp.69-71, 2010.
- [5] 염철호, 조준배,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 AURI, 2008.
- [6] 문화관광부,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2006.
- [7] 서울특별시 주택국,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06.
- [8] 케이브(CABE) 홈페이지 <http://www.cabe.org.uk>
- [9] CABE, Who we are. What we do. Why it matters., CABE, May 2006.
- [10] CABE, Corporate Strategy 2006/07-2008/09, CABE, 2007.

- [11] CABE, By Design, CABE, 2000.
- [12] CABE, The cost of bad design, CABE, 2006.
- [13] CABE, Design Champion, CABE, Brochure
- [14] CABE Space, The strategic Enabling scheme, brochure
- [15] CABE, Design review. How CABE evaluates quality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CABE, 2006.
- [16] CABE, How to do design review. Creating and running a successful panel, CABE, 2006.

이 영 범(Young Bum Reigh)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공학사)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졸업 (공학석사)
- 1996년 7월 : 영국 AA School 대학원 Ph.D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지식기반디자인, 주민참여디자인